

〈운영전〉과 〈逢異才弄筆玩技〉의 안평대군에 대한 문학적 상상력과 의미

김문희*

— <차 례> —

1. 머리말
2. <운영전>과 <逢異才弄筆玩技>의 안평대군 형상화, 표상, 논평
3. <운영전>과 <逢異才弄筆玩技>의 안평대군에 대한 상상력과 의미
4.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고전소설인 <운영전>과 야담인 <逢異才弄筆玩技>에서 나타나는 역사적 인물 안평대군의 형상화와 표상, 논평을 통해 역사적 인물을 문학적으로 재구성하는 문학적 상상력과 그 의미를 논의하는 것이다. <운영전>의 내부액자에는 안평대군을 문필가, 지인지감의 예술 후원자, 권력을 가진 통제자의 자질과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운영전>의 외부액자에서는 수성공의 묘사, 인물의 반응을 통해 안평대군에 대한 비애적 감정을 드러내고 계유정난에서 패배하고 죽임을 당한 안평대군에 대한 동정적인 시각을 표현한다. <逢異才弄筆玩技>의 서두부, 행적부에서는 안평대군을 문필가, 지인지감의 예술 후원자, 풍류남의 자질과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逢異才弄筆玩技>의 논평부에서는 안평대군이 권세와 재주는 뛰어났지만 이것을 신중하게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유정난에서 패배하여 과국을 맞게 되었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표현한다. <운영전>의 내부액자와 <逢異才弄筆玩技>의 서두부와 행적부의 인물의 자질과 모습은 역사를 모방하거나 유사하게 인물을 구성하려고 하는 역사 유사화의 모방적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다. <운영전>의 외부액자와 <逢異才弄筆玩技>의 논평부의 역사적

* 경기대학교 융합교양학부 조교수

인물 안평대군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과 시각은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다양하게 바라보는 역사 평가화의 해석적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 유사화의 모방적 상상력은 역사적 인물 안평대군을 문학에서 형상화할 때 반복적 인물 자질과 성격을 만드는 기제이며, 역사 평가화의 해석적 상상력은 새로운 안평대군의 서사를 만드는 기제가 된다.

□ 윤영전, 봉이재룡필완기(逢異才弄筆玩技), 안평대군, 역사적 인물, 문학적 상상력

1. 머리말

고전소설에서 역사적 인물을 형상화하여 소설의 인물로 차용하여 소설화하는 경우는 낫설지 않은 일이다. 역사적 인물이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보조적 인물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역사적 인물이 소설이나 문학 작품에 차용될 때는 큰 변용 없이 형상화되기도 하고 일정한 변용을 겪기도 한다. 이처럼 역사적 인물을 소설이나 문학 작품에서 형상화할 때는 역사 텍스트에 기반하여 유사한 인물 성격과 자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역사 텍스트에서는 기록되지 않는 인물의 성격과 자질이나 인물에 대한 평가 등이 새롭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것은 문학 작품이 역사적 인물을 서사화할 때 작동시키는 역사를 문학적으로 변용시키는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고전소설 <윤영전>과 야담 <逢異才弄筆玩技>에서 나타나는 역사적 인물 안평대군의 형상화와 표상, 논평을 통해 역사적 인물을 문학적으로 재구성하는 문학적 상상력과 그 의미를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전소설 <윤영전>은 윤영과 김진사의 사랑이 주 내용이지만 안평대군은 <윤영전>에서 윤영과 김진사의 사랑을 가로막고 좌절시키는 반동적 인물로 형상화된다. 야담인 <逢異才弄筆玩技>의 안평대군도 무

명의 명필가 최생에게 연모하던 평양 기생을 빼앗기고 패배하는 인물로 형상화된다. 이처럼 <운영전>과 <逢異才弄筆玩技>는 각기 다른 내용으로 역사적 인물 안평대군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두 작품에서 안평대군은 주인공은 아니지만 서사를 이끄는 중요한 인물로 구성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역사적 인물 안평대군을 바라보고 재구성하는 몇 가지 층위의 문학적 상상력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逢異才弄筆玩技>에 대한 개별 연구는 없으며, <운영전>의 안평대군에 대한 기존 연구는 안평대군 개별 인물에 대한 관심보다는 <운영전>의 반동 인물, <운영전>의 갈등 구조를 만드는 핵심적 인물, 유교적 체제 수호자 등의 소설내적 기능으로 연구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역사적 인물 안평대군의 삶과 <운영전>을 연결하여 해석하는 연구와 고전소설 <운영전>의 인물 안평대군의 형상화에 관심을 가진 몇몇 연구도 있다.

우선 역사적 인물 안평대군의 삶과 <운영전>을 연결하여 해석하는 연구는 大谷森繁 교수의 논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大谷森繁 교수는 <운영전>의 역사성을 논의하면서 수성궁이라는 실제 공간과 안평대군이라는 역사적 인물에 주목했고 작자는 안평대군에 대해 호의적이고 동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다¹⁾고 하였다. 박기석 교수는 안평대군을 중심에 두고 <운영전>의 의미를 파악하기도 하였다. 작가가 <운영전>에서 제시하고자 한 일차적 관심은 안평대군 성시(盛時)의 수성궁 생활모습이며,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 이야기는 이차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운영전>은 현실세계와 비현실세계가 반복 교차 서술되며 전개되는데, 이러한 서술방식을 구사한 것은 운영이 살았던 현실과 유영이 살고 있는 현실의 거리감을 좁히고, 사실과 허구 사이에서 안평대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도록 고

1) 大谷森繁, 『雲英傳 小考』, 『조선후기소설독자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5, 175~181쪽.

안된 장치라고 파악하였다.²⁾ 조용호 교수는 <운영전>을 유영이 서술자와 등장인물 사이에 중개자로 등장하기 때문에 2중의 액자소설로 보면서 제2의 액자속 안평대군의 죽음과 관련된 심층적인 의미를 읽어냈다. 안평대군은 왕권에 위협 세력이 된다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죽임을 당했으며 이것은 <운영전>을 정치적 알레고리로 읽을 수 있는 단서가 되며 <운영전>이 창작된 시기인 광해군 시절의 정치적인 사건들과 관련된 정치적인 텍스트로 파악하기도 하였다.³⁾

<운영전>의 인물 안평대군의 형상화에 관심을 가진 연구도 있다. 정길수 교수는 안평대군을 <운영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 ‘긍정적 인물’로 보았다. <운영전>의 작가는 안평대군의 운명에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애초부터 안평대군의 형상을 긍정적 방향에서 만들려고 했으며, 그 결과 안평대군을 운영의 사랑과 자유를 방해하는 악역의 절대 권력자가 아니라 중세적 지배체제 전체를 부각되게 하였다고 보았다.⁴⁾ 강상순 교수는 <운영전>의 비극성을 연민과 비애의 인간학으로 읽으면서 <운영전>의 작가는 안평대군을 세속의 현실과 차단된 수성궁을 구축하고 그 속에서 궁녀들을 자신이 내세운 법과 이상에 맞춰 훈육하며 스스로도 그것에 충실하고자 노력하는 가부장적 지배자로 형상화하고 있으며, 시적 감수성과 재능을 지닌 미적 인간이자 진정을 추구하는 낭만적 이상주의자라고 보았다.⁵⁾ 황혜진 교수는 <운영전>의 안평대군과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안평대군의 기록을 대비하여 역사 기록과

2) 박기석, 「운영전」,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7, 716~722쪽.

3) 조용호, 「운영전 서사론」, 『한국고전연구』 3, 한국고전연구학회, 1997, 134~158쪽.

4) 정길수, 「운영전의 메시지-캐릭터 설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 『고소설연구』 28, 한국고소설학회, 2009, 76~92쪽.

5) 강상순, 「운영전의 인간학과 그 정신사적 의미」, 『고전문학연구』 39, 한국고전문학회, 2011, 151~152쪽.

<운영전>의 안평대군 형상화의 거리를 연구하였다. 애정 관계에서 실록의 안평대군 기록은 혼인 관계 이외 여중, 숙부의 아내, 유부녀 등과 관계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운영전>에서 나타나는 안평대군의 애정 관계와는 다르며, 교유 관계에서도 다양한 인간 군상과 교유하였지만 <운영전>의 안평대군은 시와 학문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만 교유했다는 것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정치적 야심의 측면에서도 실록에서는 안평대군의 권세가 막강하였지만 <운영전>에서는 안평대군의 정치적 야심과 관련된 내용은 생략되었다고 지적하였다.⁶⁾ 이 연구는 안평대군의 역사적 실상과 허구적 형상의 차이를 잘 지적하였지만 역사와 소설속 <운영전>의 안평대군의 형상화를 가능하게 하는 계기나 역사적 인물 안평대군을 문학적으로 재구성하는 기제 등을 다루지 않았다.

본 연구는 역사적 인물인 안평대군이 고전소설과 야담에서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으며, 문학 속에서 재구성되는 안평대군의 형상화와 표상, 논평을 가능하게 하는 문학적 상상력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안평대군의 문학적 형상화를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 되는 계기와 그 의미를 구명하려고 한다. 본 연구의 대상 텍스트는 국립중앙도서관본 <운영전>을 저본으로 삼아 번역한 <운영전>(이상구 역주, 『17세기 애정전기 소설』, 월인, 1990)과 서울대 도서관 가람문고본 『청야담수』의 <逢異才弄筆玩技>를 번역한 <안평대군과 최생>(김동욱 역, 『국역 청야담수』, 보고서, 2004)⁷⁾으로 한다.

6) 황혜진, 『고전소설 소재 인물의 역사적 삶에 대한 연구-<운영전>의 안평대군에 대한 실록의 기록을 대상으로-』, 『고소설연구』 29, 한국고소설학회, 2010, 117~118쪽.

7) 『청야담수』에는 안평대군과 최생의 이야기가 <逢異才弄筆玩技>의 소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번역자가 국역하면서 <안평대군과 최생>으로 다시 제목을 달았다. 『청야담수』의 <逢異才弄筆玩技>는 『동야휘집』의 <逢異才弄筆玩技>를 그대로 수록한 것이다.

2. <운영전>과 <逢異才弄筆玩技>의 안평대군 형상화, 표상, 논평

1) <운영전>의 안평대군 형상화와 표상

(1) <운영전>의 내부액자의 안평대군 형상화

<운영전>은 잘 알려져 있듯이 유명-김진사, 운영의 이야기인 외부액자와 김진사, 운영-안평대군의 이야기인 내부액자로 구성된 액자구조형 소설이다. 이중 안평대군의 모습은 내부액자에서 보다 잘 형상화되어 있고, 외부액자인 도입액자와 종결액자에서는 안평대군에 대한 기억과 회상이 드러나 있다.

<운영전>의 내부액자 속 안평대군의 모습과 자질은 주로 서술자의 서술, 인물인 운영의 설명, 안평대군의 말과 행동으로 구체화된다. <운영전>에서 형상화되는 안평대군의 첫 번째 자질과 성격은 뛰어난 문필가로서의 면모이다. 내부액자가 시작되는 첫 부분에서 운영의 목소리를 통해 뛰어난 문필가로서의 안평대군의 모습이 설명된다.

㉠ 대군은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 자처하여 밤에는 독서를 하고 낮에는 시를 짓거나 예서를 쓰는 등 일찍이 짧은 시간도 헛되어 보내지 않았습니
다. 그래서 당시의 문인과 뛰어난 선비들이 모두 수성궁에 모여 들어 실력을 겨루었는데, 때로는 새벽닭이 세 번 울 때까지 학문을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대군은 필법에도 뛰어나 온 나라에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문종께서 왕위에 오르시기 전에 집현전의 여러 학사들과 함께 안평의 필법을 거론하면서 항상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내 아우가 만약 중국에서 태어났다면 비록 왕일소에게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어찌 조송설보다 못하겠는가!” 문종께서는 이렇듯이 안평대군에 대한 칭찬을 마지 아니하셨습니다. <중략> 대군은 즉시 그 위에다 깨끗한 집 10여 칸을 짓고, 그 집에 현판을 붙여 비해당(匪解

堂)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그 옆에 단(壇) 하나를 축조하여 이름을 맹시단(盟詩壇)이라 하였는데, 이는 무릇 명분을 돌아보고 의리를 생각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당시의 뛰어난 문장과 서예가들이 모두 그 단에 모이었는데, 문장은 성삼문이 으뜸이었으며, 필법은 최홍효가 으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대군의 재주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상구 역주, <운영전>, 『17세기 애정전기소설』, 월인, 1999, 101~103쪽)

위의 예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안평대군은 문장과 필법에 뛰어난 실력을 가진 인물로 설명된다. 안평대군은 밤낮으로 독서하고 문장을 갈고 닦았으며 문인들과 토론하는 뛰어난 문장가로 표상된다. 안평대군의 문장가로서의 능력은 당대의 문장으로 으뜸인 성삼문보다 뛰어나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필법에서도 원나라 때의 명필인 조맹부보다 낮고 조선의 명필인 최홍효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안평대군의 필법은 부각되고 있다.

뛰어난 문필가로서의 안평대군의 모습은 <운영전>의 내부액자의 여러 장면에서도 포착된다. 안평대군은 운영을 포함한 10명의 궁녀가 시은 시를 품평한다. 안평대군은 비취가 지은 시의 격조와 옥녀와 자란이 지은 시의 의사(意思)를 세밀히 분석하여 으뜸이라고 평가하고 운영의 시에 숨어있는 ‘쓸쓸히 님을 그리워하는 뜻’을 간파해내는 문장에 대한 감식안을 가진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다. 또한 수성궁을 방문한 김진사를 만나 옛날 시인을 논하고, 김진사가 지은 시를 논평하고, 김진사의 문장과 필법을 칭찬하는 부분에서도 문필의 대가로서 안평대군의 면모가 그대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처럼 <운영전>의 안평대군의 뛰어난 문필가로서의 자질과 모습은 역사적 인물 안평대군의 실제적 면모에 기반하여 만들어지는 소설적 형상화라고 할 수 있다. 문장과 명필가로서의 안평대군의 자질과 모습은

역사적 기록과 여러 문헌들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안평대군은 집현전의 신진 문사들과 함께 여러 권의 문학서를 편찬하였다. 1443년 신석조 등 여섯 명의 집현전 관원들과 두보 시를 주석하여 『찬주분류두시』를 엮었는데 그 중심에는 안평대군이 있었다. 안평대군은 여러 선비들과 함께 이백, 두보, 위응물, 유종원, 구양수, 왕안석, 소식, 황정건 등 여덟 시인의 시를 선별하여 10권의 『당송팔가시선』을 편찬하였다. 특히 안평대군은 황정건의 시를 좋아했는데 황정건의 시를 선별하고 자신의 평론을 덧붙여 『산곡정수』를 엮기도 하였다. 1445년에는 백거이의 시 185수를 뽑아 교감하고 주석을 단 『향산삼체법』을 편찬하여 서문을 썼으며, 같은 해에 북송 때 시인 왕안석 시의 정수를 모아 『반산정화서』를 편찬하였다. 1466년에는 북송 시인 매요신의 시를 선별하여 간략한 주해를 덧붙여 『완릉매선생시선』을 편찬하였다.⁹⁾ 이처럼 안평대군은 당, 송대 시에 대한 조예가 깊었으며 세종 연간에 문학서를 편찬하는 중심에 서 있었다.

그러나 안평대군이 직접 쓴 시문집은 전해지지 않는다. 다만 안평대군이 지은 시문이 여러 문헌에 전해지고, 또 그의 시에 차운하거나 그의 시문을 언급한 기록¹⁰⁾을 통해 안평대군의 문장가로서의 자질을 짐작할 수

8) 최근에 심경호 교수는 안평대군의 저작물과 관련 시문들, 실록의 기록, 교유했던 문사들의 시문들을 모아 안평대군의 평전, 『안평安平-몽유도원도와 영혼의 빛』(알마출판사, 2018)을 출간했다. 기존에 실록의 기록이나 제한된 자료들에 의거해 안평대군을 평가했던 시각에서 벗어나 이 평전은 안평대군의 생애와 문화적 업적, 역사적 상황 등을 다각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도 심경호 교수의 저작물에 힘입은 바가 크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안평대군에 대한 기록과 자료를 한데 묶어 평전 형식으로 출판한 이 책은 역사적 인물의 문학적 형상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필자에게 안평대군을 대상으로 문학적 형상화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선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9) 심경호, 『안평安平-몽유도원도와 영혼의 빛』, 알마출판사, 2018, 411~482쪽; 이종목, 『安平大君의 문학 활동 연구』, 『진단학보』 93, 진단학회, 2002, 258~259쪽.

있다. 특히 김종직이 두류산을 유람하고 지은 『유두류록』에는 가섭전 법당의 몽산화상에 대해 안평대군이 쓴 찬 <몽산화상찬>이 있는데 이 시문을 두고 안평대군을 시, 서, 화에 모두 뛰어난 삼절(三絶)이라는 평가¹¹⁾를 내리기도 했다. 또한 안평대군이 성삼문에게 준 <청지가 근보를 위해 짓다(淸之爲謹甫作)>라는 제목의 칠언절구시와 송죽도를 보고 쓴 사언제화시나 안평대군의 친필로 쓴 청지금니(靑紙金泥)에 쓴 칠언절구시¹²⁾를 보아도 안평대군의 문장가로서의 자질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운영전>에서 형상화되는 안평대군의 문장가로서의 자질은 역사적 인물 안평대군이 지니고 있던 시와 문장에 대한 능력을 소설 속에서 되살린 것이다.

한편으로 안평대군의 서법이 뛰어나다는 평가는 세종 때 명나라 사신 예겸과 사마순이 왔을 때 그들에게 안평대군의 필적이 높게 평가받은 것에서 기인한다. 1450년에 조선에 온 두 사신이 중국에 전할 묘필을 청하자 안평대군이 글씨를 써준다. 이에 예겸이 “송설옹(松雪翁)의 삼매(三昧)를 얻은 것”¹³⁾이라는 평가와 중국 황제가 안평대군의 글씨를 보고 “매우 좋다. 바로 이것이 조자양(趙子昂)의 서체이다.”¹⁴⁾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기록이 실록에 있다. 이것이 계속해서 다른 문헌에 실리고 언급됨으로써 안평대군이 조선의 뛰어난 명필가라는 평가가 부기된다. 이런 실록의 기록은 후대에 안평대군의 글씨를 칭송하는 시와 여러 문헌에서 반복해서 언급함으로써 서법의 대가로서 안평대군의 면모가 정립된다.

② 신숙주와 성삼문은 왕명으로 모화관에 가서 이들 사신에게 한자의 운

10) 심경호(2018), 위의 책, 725쪽.

11) 심경호(2018), 앞의 책, 733쪽.

12) 심경호(2018), 앞의 책 732~742쪽.

13) 『세종실록』 권127. 32년 정월 11일 丙辰, 기록 참조.

14) 『문종실록』 권3, 즉위년 8월 5일 丙子, 8월 19일 庚寅, 기록 참조.

(韻)에 대해 물었는데, 예겸은 안평대군이 작은 해서로 ‘범옹책(泛翁策)’이라는 쓴 것을 보고 놀라서 누가 쓴 것인지 물었다. 신숙주가 시험 삼아 강희안의 글씨를 갖다 주자, 예겸은 같은 필적이 아니라고 했다. 세종은 이 사실을 보고받고 사실대로 고하게 하고, 예겸 등에게 안평대군의 필적을 더 보여 주게 했다. 다음날 잔치에서 안평대군이 술을 부어 권하자, 예겸 등이 “묘필을 중국에 전했으면 합니다.”라고 했다. 이에 안평대군이 수십 폭을 써서 종부 판관 황의헌을 시켜 사신에게 주었다. 혹은 안평대군이 밤을 새어 수백장의 종이에 행초를 써서 보내자, 예겸은 안평대군의 글씨에 대해 “지금 진학사(陳謙)가 글씨를 잘 써서 중국에서 명예를 독차지하고 있지만 이 왕자에게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했다고도 하고, 혹은 “진학사는 필력이 굳세고 활발한 기상이 이에 미치지 못합니다. 참으로 송설옹(趙孟頫)의 삼매(三昧)를 얻었습니다”라고 했다고도 한다. 그러자 중국 사신들은 시를 지어 사례했다. 이후 중국에서 훌륭한 글씨라고 하여 사가지고 오면 그것이 안평대군의 수적이었으므로 대군이 크게 만족스러워 했다고 전한다.¹⁵⁾

이것은 이공익이 지은 『연려실기술』 권14, <필법편>에 실려있는 내용이다. 이 일화는 실록에 기록된 것을 더욱 상세하게 적은 것인데, 이 일화는 더욱 앞서 저작된 성현의 『용재총화』에서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또한 박팽년의 제시(題詩)의 주석과 시에도 있으며, 최항의 <비해당시축시>의 서문에도 언급되어 있다. 또한 신석조의 칠언율시와 성삼문의 시에도 명나라 사신 예겸과 사마순이 안평대군의 글씨를 지참해가서 천자에게 인정받고 널리 알려졌다는 내용이 나온다. 신익성은 이홍연이 엮은 『동국서법』에 서문을 쓰면서 안평대군의 글씨를 높이 평가¹⁶⁾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안평대군의 명필가의 모습은 실록의 기록과 후대의 문헌과 시

15) 이공익, 『연려실기술』 권14, <필법편>. 심경호(2018), 앞의 책, 547쪽 재인용.

16) 심경호(2018), 앞의 책, 545~563쪽.

를 통해 인구에 회자되어 후대에 전달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자질이
다. 그러므로 <운영전>에서 나타나는 명필가로서의 안평대군의 모습은
이러한 기록과 문헌의 내용을 수용하고 모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운영전>에서 형상화되는 안평대군의 두 번째 자질과 성격은 지인지
감(知人之鑑)을 가진 예술 후원자로서의 면모이다. <운영전>의 안평대
군은 문필가로서 자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문장과 필법을
알아보고 문필가와 교류하고 그들을 후대하며 격려하는 인물로 형상화된
다. <운영전>의 안평대군은 당대의 뛰어난 문사(文士)와 선비들을 수성
궁에 불러들여 이들과 문장과 필법에 대해서 논하고 친분을 맺고, 연대하
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당시의 문인과 뛰어난 선비들이 모두 수성궁
에 모여들어 실력을 겨루었는데, 때로는 새벽닭이 세 번 울 때까지 학문
을 토론하기도 했다(101쪽)”는 것이나 비해당 옆에 맹시단이라는 단을 만
들어 “당시의 뛰어난 문장가와 서예가들이 모두 그 단에 모였다(102쪽)”
로 서술된 것만 보아도 안평대군의 수성궁과 비해당은 문장가와 서예가
의 집합소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중심에 안평대군이 있다는 사실을 짐
작할 수 있다.

안평대군은 운영을 포함하여 10명의 궁녀에게 시를 짓게 하고 시를 하
나하나 논평하여 잘못된 곳을 바로 잡아주기도 하면서 궁녀들의 문장을
숙련시킨다. 10명의 궁녀는 안평대군의 이와 같은 시작(詩作) 훈련에 힘
입어 뛰어난 문장가로 성장해나간다. 안평대군의 집에 모인 문인과 재주
있는 선비들에게 10명의 궁녀가 지은 부연시(賦煙詩)를 보여주자 이들의
시를 극찬하는데 성삼문은 안평대군이 숙련시키고 있는 10명의 궁녀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이들의 시를 보고 ‘궁중에 10명의 선인(仙人)을 기르
고 있다’고 확신한다. 안평대군이 10명의 궁녀에게 학문을 가르치면서 여
자들도 문장가로 성장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이들을 격려하고 이끄는 것

은 예술가의 자질을 발굴하고 후원하는 예술 후원자로서의 안평대군의 모습을 <운영전>에서 재구성하는 것이다.

수성궁 안에서는 10명의 궁녀의 재주를 알아보고 이끌었다면 안평대군은 수성궁 밖의 문장과 필법이 뛰어난 선비를 알아보고 후대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안평대군은 빼어난 문장력과 필법을 가지고 있는 김진사를 후대하고 그의 능력을 늘 칭찬하고 존경하기도 한다. 김진사는 문장과 필법은 뛰어나지만 권세나 부를 가지지 못한 한미한 젊은 선비이다. 그런 김진사가 안평대군을 찾아오자 안평대군은 반갑게 맞이하며, “오래도록 그대의 명성을 우러렀는데, 이렇게 좌굴관개 온 집안이 빛나는구려. 나의 기쁨이 못 벗들에게 얻는 것보다 크다(113쪽)”고 하면서 김진사를 극진하게 대우한다. 김진사가 지은 2편의 시를 보고는 “천하의 기재(奇才)라고 할만한데, 어찌하여 이렇듯 늦게 만났던고(114쪽)” 하면서 김진사의 시에 탄복한다. 안평대군은 김진사를 수성궁에 자주 초청하여 교류하고 여러 문사와 선비들 앞에서 김진사가 재주를 드러낼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기도 한다. 이런 안평대군의 노력으로 안평대군의 집에 드나드는 손님들도 김진사의 재주에 감탄하고 김진사를 지극히 공경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김진사는 안평대군에게 “한미하고 천한 유생으로 외람되이 은총을 입었고, 나리의 후덕하신 부름을 받았다(120쪽)”고 하면서 안평대군의 후의에 감사하기도 한다. <운영전>의 안평대군은 김생과 같은 포의한사의 문장과 필법에 대한 능력을 알아보고 이들을 후대하는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운영전>의 안평대군은 당시에 뛰어난 문장가와 서예가를 알아보고 그들과 교류하기도 하고, 궁녀에게 공부와 시를 가르쳐 문장가로 키우며, 김진사와 같은 한미한 선비의 재주를 알아보고 담론하는 지인지감형 예술 후원자의 면모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러한 지인지감형 예술 후

원자로서의 안평대군의 자질과 면모는 실록과 여러 문집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다.

안평대군은 조정의 원로 대신들과 집현전의 신진 문사들과 함께 시회를 열거나 이들의 시를 받아 시축을 꾸미는 등 활발한 활동¹⁷⁾을 하였다. 안평대군은 소상팔경 그림과 시를 묶어서 『소상팔경시권』을 만들고 자신은 서문을 쓰고 당시 시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청하여 시를 짓게 하였다. 여기에 참여한 문사들은 하연, 김종서, 정인지, 조서장, 강석덕, 안지, 안승선, 이보흠, 남수문, 신석조, 유의손, 최항, 박팽년, 성삼문, 신숙주, 윤계동, 김맹, 만우¹⁸⁾ 다.

문종 즉위 후에는 자신의 집인 비해당의 사계절 풍경을 그림으로 그리게 하고 다시 문인들에게 시를 청해 『비해당사십팔영시권』을 만들었다. 비해당의 48영을 선정하고 자신이 먼저 48영을 노래하고 문사들에게 차운하게 하였는데, 안평대군의 시에 차운한 사람들은 신숙주, 성삼문, 이개, 김수온, 이현로, 서거정, 이승윤, 임원준¹⁹⁾ 등이었다. 안평대군은 마포 북쪽 기슭에 있던 자기 소유의 담담정에서도 문인들과 수창하며 <담담정십이영>과 <담담정사시>, <담담정사수>와 같은 시를 짓게 하였다.²⁰⁾ <운영전>에서 궁녀들이 부연시(賦煙詩)와 포도시, 수정궁의 경물시 등을 짓고 이것을 수창하여 제시하는 것도 안평대군과 문인들과 시를 짓고 수창했던 사건에서 촉발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안평대군은 더욱 많은 문사들을 모아 <몽유도원도>를 보고 지은 시축인 <몽유도원도시권>을 만들게 된다. <몽유도원도>는 안평대군이

17) 이종목(2002), 앞의 논문, 262~263쪽.

18) 심경호(2018), 앞의 책, 582~584쪽.

19) 심경호(2018), 앞의 책, 625쪽.

20) 이종목(2002), 앞의 논문, 265쪽.

꿈에 도원에 이르러 시를 지은 경험을 화가 안전에게 말하고 꿈속 도원의 모습을 그리게 한 것이다. <몽유도원도>를 제작한 후 문사들에게 시를 짓게 하고 그 시문을 모은 것이 <몽유도원도시권>이다. 여기에 참여한 사람은 고득중, 강석덕, 정인지, 박연, 김종서, 이적, 최항, 신숙주, 이개, 하연, 송처관, 김담, 박팽년, 유자운, 이에, 이현로, 서거정, 성삼문, 김수온, 만우, 최수²¹⁾다. 이들은 조정의 중진 그룹과 집현전 출신의 신진 문사들인데 안평대군의 문화그룹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안평대군은 문사들과 교류하고 연대하며 당대 안평대군 사단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문화그룹을 만든 장본인이었다. <운영전>의 지인지감형 예술 후원자로서의 모습은 당대 뛰어난 문사들과 교류하면서 이룩했던 안평대군의 문학적 결실, 서화를 수집하고 창작했던 안평대군의 예술 활동에서 맡았던 패턴적인 역할을 <운영전>의 작가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운영전>에서 형상화되는 안평대군의 세 번째 자질과 성격은 권력을 가진 통제자로서의 모습이다. 권력을 가진 통제자로서의 안평대군은 <운영전>의 내부액자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인물의 서사적 기능이기도 하다.

안평대군은 10명의 궁녀를 문장가로 키우는 지인지감형 예술적 후원자의 면모도 지니지만 10명의 궁녀를 자신의 권력으로 단속하는 통제자로서의 면모를 보인다. 안평대군은 수성궁에 찾아오는 문사들과 궁녀들이 만나지 못하게 방비하면서 만에 하나 “시녀가 한 번이라도 궁문을 나가면 그 죄는 죽어 마땅할 것이요, 궁궐 밖의 사람이 궁녀의 이름을 알기만 해도 또한 죽일 것(104쪽)”이라고 엄포를 놓는다. 궁녀들이 지닌 재능은 키워주지만 궁녀가 지니고 있는 신분적 속박은 더욱 단도리하고 개아로서

21) 이종목(2002), 앞의 논문, 267~268쪽.

인간의 자유를 철저히 억압한다.

안평대군은 운영이 지은 부연시에 님을 그리워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질책하기도 하고 왜철쪽의 모습을 시제로 하여 지은 운영의 오언 절구시를 보고 운영과 김생의 관계를 의심하며 운영을 꾸짖는 모습에서도 궁녀의 욕망이나 자유를 통제하는 권력자로서의 안평대군이 형상화된다.

김진사의 노비 특이 김진사와 운영의 관계를 맹인에게 전달해 그 소문이 안평대군에게 알려지자 안평대군은 운영과 함께 기거하는 5명의 궁녀를 잡아들여 형장을 갖추어 치죄하기에 이른다. 운영이 궁녀로서 일부종사하는 정절을 지키지 못한 것과 다른 궁녀들이 이를 방관했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엄벌하려고 하는 것이다. 안평대군은 5명의 궁녀가 다른 사람의 경계가 되도록 “곤장 수를 헤아리지 말고 죽을 때까지 때리라”고 명령한다. 그러자 5명의 궁녀는 지금까지 남녀의 정욕을 억제하고 살았던 자신들의 처지를 말하면서 운영의 행동을 두둔한다. 남녀의 정욕은 남녀고하를 막론하고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수성궁에 갇혀 살아가는 자신들은 그런 인간의 기본적 감정은 억압받고 통제받는 삶을 살았던 한을 토로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갈등의 근원은 조선시대 궁녀 제도의 불합리성에 있고, 이것을 철저히 고수하여 궁녀들을 억압하는 안평대군의 권력과 통제에 기인한다. 유교적 체제 수호자로서 인간의 정욕을 억압하는 <운영전>의 안평대군의 모습은 기존의 <운영전> 연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²²⁾되었다.

<운영전> 내부액자의 핵심 갈등은 바로 여기에 있다. 운영과 김진사의

22) 신경숙, 「운영전의 반성적 검토」, 『한성어문학』 9, 한성대 국어국문학과, 1990, 61~65쪽; 이상구, 「운영전의 갈등양상과 작가의식」, 『고소설연구』 5, 한국고소설학회, 1998, 145~150쪽; 정출현, 「운영전의 애정갈등과 그 비극적 성격」, 『고전소설사의 구도와 시각』, 소명출판사, 1999, 110~112쪽; 박일용, 「운영전의 비극적 성격과 그 사회적 의미」, 『조선시대의 애정소설』, 집문당, 2000, 174~178쪽.

자연스러운 애정 갈구와 이것을 금지하는 권력자 안평대군의 억압적 조치가 <운영전> 갈등의 정점을 이룬다. 이것은 소설 <운영전>의 갈등 구조를 축조하기 위한 허구적 대립각이라고 할 수 있다. 안평대군은 세종대왕의 아들이고 세종의 뒤를 이은 문종의 아우였기 때문에 안평대군의 권력과 권세는 막강했다. 실제 안평대군의 역사적 기록에서 대군의 신분으로 자유분방한 애정 행각을 벌인 것²³⁾은 사실이지만 권력을 가진 통제자로서 궁녀를 억압한 사건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운영전>에서는 당대 권력의 최고 위치에 있으면서 권력의 말단에 있는 궁녀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허구적 인물형으로 안평대군의 모습을 만든다. 인간의 정욕이나 자유로운 애정 추구의 반대 급부로서 가장 강력한 유교적 체제 수호자와 통제자가 필요했을 것인데 안평대군은 그런 인물로 적합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운영전>에서 형상화되는 권력을 가진 강력한 통제자로서의 모습은 역사적 인물 안평대군을 재해석하여 소설적 상상력으로 새롭게 만들어낸 인물 형상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운영전>의 외부액자의 안평대군에 대한 표상

<운영전>의 안평대군의 모습과 자질을 직접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은

23) 황혜진은 안평대군이 혼인 이외의 관계에서 자유분방했다고 보았다. 안평대군은 동생 광평대군 집에 있는 부전이라는 여종에게 마음이 있어 부전을 취하려고 했는데 세종의 반대로 이를 수 없었고, 숙부인 성녕대군의 양자로 들어가 그 양어머니 성씨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등 자유분방하게 혼외 관계를 맺었다고 하였다. (황혜진(2010), 앞의 논문, 126~129쪽.) 이종묵도 안평대군이 여색에 탐닉한 사례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광평대군의 계집종 부전 사건뿐만 아니라 계유정난 후 수양대군의 측근은 안평대군이 여러 계집종과 간음하고 성녕대군의 부인 성씨와도 간통하였으며, 남의 아내와 첩을 빼앗은 것이 무수히 많았다는 악행을 열거했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이종묵(2002), 앞의 논문, 258쪽.) 그러나 심경호는 부전의 스캔들 이외의 수양대군의 측근이 말한 안평대군의 악행 중 성녕대군 부인 성씨와의 간통은 수양대군 측의 날조라고 보았다. (심경호(2018), 앞의 책, 1055쪽.)

아니지만 <운영전>의 외부액자에서는 수성궁 묘사, 김진사와 운영의 반응에 의해 역사적 인물 안평대군에 대한 <운영전>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운영전>의 외부액자는 유영이 꿈에 김진사와 운영을 만나 김진사와 운영의 비극적 애정담을 듣는 도입액자와 종결액자이지만 이 도입액자와 종결액자에는 역사적 인물 안평대군에 대한 회상과 추모의 감정이 풍부하게 드러난다.

먼저 <운영전>의 서두인 도입액자는 안평대군이 살았던 수성궁에서 유영이 김진사와 운영을 만나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수성궁의 묘사이다. 수성궁의 묘사는 안평대군의 전성기와 몰락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서두에서 안평대군의 수성궁은 ‘산천이 수려하여 용이 서리고 호랑이가 걸터앉은 형세’의 웅장한 모습과 수성궁 주변 동서남북의 원경은 번성함을 드러내는 절승지의 모습으로 묘사된다.

③ 당시의 주객(酒客)이나 활을 쏘며 노는 무리, 노래하고 피리 부는 아이들, 시인과 서예가들이 꽃 피고 버드나무 늘어진 봄이나 단풍이 물드는 가을이 되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위에 올라가 풍월을 읊조리고 경치를 구경하며 노느라 집으로 돌아가는 것마저 잊곤 하였다.

(이상구 역주, <운영전>, 『17세기 애정전기소설』, 월인, 1999, 97쪽)

<운영전> 서두의 수성궁은 안평대군이 살았던 당시의 번성했던 수성궁의 모습과 일치하고 문필가와 예술 후원자로서 호화롭게 살았던 안평대군의 역사적 삶과 오버랩되게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전란을 겪은 후 수성궁 후원에서 현재 유영이 바라보는 수성궁의 모습은 서두의 수성궁의 모습과 대조적이다. “장안의 궁궐과 성안에 가득했던 화려한 집들이 텅빈 채 남아 있지 않았다. 무너진 담과 깨어진 기와조각, 폐쇄된 우물과

무너진 돌계단 사이에는 잡초가 무성하였으며, 동쪽 문 몇 칸만이 홀로 우뚝 솟아 있을(97쪽)” 정도로 폐허가 된 상태이다. 안평대군 사후의 수성궁은 급격한 쇠퇴의 과정을 겪으며 몰락한 모습이다. 이러한 수성궁의 쇠퇴와 몰락은 단순히 옛 궁궐의 쇠퇴와 몰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성궁의 주인인 안평대군의 몰락과 패배를 표상한다.

<운영전>의 결말인 종결액자에는 폐허가 된 수성궁과 수성궁에 의해 촉발되는 안평대군의 몰락과 패배에 대한 인물의 애도와 비애가 더욱 강하게 드러난다. 김진사와 운영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끝내고 서로 마주 보고 슬프게 울자 유영은 “바라던 뜻도 이루어졌으며, 원수인 노비도 제거되어 분통함을 씻었는데 이렇듯 비통해하느냐(157쪽)”고 묻자 김진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④ 오늘 저녁에 우리가 슬퍼하는 것은 대군이 한 번 패배한 이후로 고궁(古宮)에는 주인이 없으며, 까마귀와 참새가 슬피 울고 인적이 이르지 않아 슬픔이 극에 달한 때문입니다. 게다가 새로 병화(病火)를 겪은 뒤에 화려했던 집들은 재가 되고 회칠한 담장은 모두 무너졌는데, 오로지 섬돌의 꽃은 향기롭고 뜰의 풀들만 무성합니다. 이렇듯 봄빛은 옛날의 정경을 바꾸지 않았으나 인사(人事)는 변하여 이처럼 바뀌었습니다. 다시 이곳에 와서 옛일을 회상하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겠습니까?

(이상구 역주, <운영전>, 『17세기 애정전기소설』, 월인, 1999, 157쪽)

김진사와 운영은 자신들이 슬퍼하는 이유는 인간세상에서 사랑을 이루지 못한 자신들의 한 때문이 아니라 안평대군의 몰락과 패배가 환기하는 인간사의 변화 때문이라고 답한다. 과거 호화롭고 화려했던 수성궁의 집들은 재가 되고 무너졌지만 봄빛은 안평대군이 살았던 예전 그대로인 것을 보고 김진사와 운영은 계유정난에서 패배하고 수양대군에게 죽임을

당한 안평대군의 비극적 삶을 슬퍼하는 것이다. 내부액자에서 안평대군은 김진사와 운영의 애정을 가로막는 방해자이며 적대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김진사와 운영은 노비 특에게서 느끼는 반감과 원한을 안평대군에게도 가질 법도 한데 김진사와 운영은 안평대군을 탓하거나 안평대군에게 원한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안평대군의 몰락과 패배를 슬퍼하고 안평대군을 애도하는 반응을 보인다.

더 나아가 김진사와 운영은 절구 한 수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안평대군의 과거 삶과 몰락을 안타까워한다. “꽃이 진 궁중에 제비와 참새가 나니/ 봄빛은 여전하나 주인은 아니로다/ 밤하늘의 달빛은 이렇듯 서늘한데/ 푸른 이슬은 푸른 깃털 옷을 적시지 못하네”라고 김진사가 안평대군 없는 수성궁의 봄빛을 아쉬워하자 운영은 “고궁의 꽃과 버들은 새로이 봄빛을 띠었는데/ 호화롭던 오랜 옛일 자꾸만 꿈속에 드네/ 오늘 저녁 옛 자취를 찾아와 노니/ 슬픈 눈물이 절로 수건 적심을 금하지 못하네”라고 하며 안평대군의 생전을 회상하고 현재와 비교하며 안평대군의 몰락을 슬퍼한다. 김진사와 운영의 절구 시는 수성궁에서 호화롭고 화려하게 대군의 삶을 살았던 안평대군의 전성기의 삶과 계유정난 때 사사당하고 온 가문이 멸문지화를 만나 풍비박산이 된 안평대군의 일련의 삶을 회상하고 안평대군의 비극적 삶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운영전>의 외부액자에서 나타나는 수성궁의 과거와 현재의 대비적 공간묘사와 김진사와 운영의 비애적 감정은 결국 역사적 인물 안평대군의 삶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계유정난의 역사를 바라보는 후대 역사 향유자들의 반응과 해석이 <운영전>의 도입액자의 공간묘사와 종결액자의 인물의 반응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계유정난에서 수양대군에게 죽임을 당한 안평대군의 최후에 대한 동정적이고 비애적인 시각이 <운영전>의 안평대군에 대한 또 하나의 표상을 만드는 기제가 된

다 하겠다. 수양대군은 단종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 단종을 비호하는 김종서와 아들에게 역모의 혐의를 씌워 죽이고 왕명을 이용하여 단종 측근의 신하를 죽이고 계유정난을 일으킨다. 또한 문화그룹을 형성하며 큰 세력을 가지고 있던 동생 안평대군을 사사한다. 계유정난에서 패배하고 역사에서 사라진 뛰어난 재능의 소유자 안평대군에 대한 동정적 시각과 해석이 <운영전>의 안평대군의 인물 표상을 만드는 또 하나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포착할 수 있다.

2) <逢異才弄筆玩技>의 안평대군 형상화와 논평

(1) <逢異才弄筆玩技>의 서두부와 행적부의 안평대군 형상화

<逢異才弄筆玩技>는 역사적 인물 안평대군과 허구적 인물 최생을 소재로 한 야담이다. 안평대군과 최생의 이야기는 각종 야담집에 수록되어 있다. 18세기 후반에 편찬된 『동패락송』에는 <匪懈堂安平大君與崔姓人遊平壤>의 소제목으로 안평대군과 최생의 이야기가 실려있고 서형수(徐滢修 1749-1824)의 시문과 학문 저작을 모은 책인 『명고전집』의 14권에 도 <최생전>이 실려있다. 19세기 중반에 편찬된 『동야회집』과 20세기 초에 필사되었다고 추정되는 『청야담수』에는 안평대군과 최생의 이야기는 <逢異才弄筆玩技>라는 소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청야담수』가 『계서야담』, 『동야회집』, 천리대본 『동패락송』, 『기문총화』 등을 저본으로 발췌하여 전제한 총화(叢話) 유형의 야담집²⁴⁾이라는 측면에서 『청야담수』에 수록된 <逢異才弄筆玩技>는 『동야회집』의 <逢異才弄筆玩技>를 재수록한 것이다. 또한 안평대군과 최생의 이야기는 서유영(徐有英 1801~1853)이 1873년에 저술한 문헌설화집인 『금계필담』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24) 김동욱 역, 『국역 청야담수』, 보고서, 2004, 183쪽.

소재목은 없다. 『금계필담』의 안평대군과 최생의 이야기는 전대 문헌인 『동패락송』과 『동야휘집』을 재수록한 것²⁵⁾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안평대군과 최생의 이야기는 『동패락송』을 필두로 해서 여러 야담집과 개인 문집에 수록된 널리 알려진 이야기라고 하겠다.

각종 야담집과 문집에 실려있는 안평대군과 최생의 이야기는 안평대군이 재야의 명필가 최생에게 재주와 능력에서 밀리고 평양 기생이 안평대군은 안중에도 없고 최생에게 매혹당한다는 스토리이다. 이러한 스토리는 공통적이지만 세부적 서술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서두부의 유무, 행적부, 후일담의 유무, 논평부의 유무와 같은 차이가 있다. 『동패락송』의 <匪懈堂安平大君與崔姓人遊平壤>은 서두부와 논평부는 없고 행적부만 있고, 서형수의 『명고전집』 <최생전>은 서두부, 행적부, 논평부가 모두 있다. 서유형의 『금계필담』의 안평대군과 최생 이야기는 서두부와 행적부만 있고 논평부는 없으며, 『동야휘집』과 『청야담수』의 <逢異才弄筆玩技>는 서두부, 행적부, 논평부가 모두 갖추어져 있다. 『동야휘집』과 『청야담수』의 <逢異才弄筆玩技>는 다른 야담의 행적부 이야기보다 매우 풍부한 편이다. 또한 역사적 인물 안평대군을 설명하는 서두부도 다른 야담들보다 상세하고, 논평부도 풍부하다. 『동야휘집』과 『청야담수』의 안평대군의 모습을 가장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형상화한 텍스트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야담수』의 <逢異才弄筆玩技>를 번역한 <안평대군과 최생>²⁶⁾을 중심으로 논의를 펼칠 것이다.

먼저 『청야담수』 <逢異才弄筆玩技>의 서두부에는 역사적 기록에 의거한 안평대군에 대한 설명이 소상하게 드러난다.

25) 장효현, 『서유영 문학의 연구』, 아세아문화사, 1988, 195~196쪽.

26) 김동욱 역, 『국역 청야담수』 1, 보고서, 2004를 분석 텍스트로 하고 정명기 편, 『원본 동야휘집』상, 보고서, 1992를 참고해서 살펴볼 것이다.

⑤ 안평대군 용의 자는 청지, 호는 비해당이다. 세종의 셋째 아들로, 학문을 좋아하고 더욱이 시문에 뛰어났으며, 글씨 쓰는 법도가 매우 신기하여 당대의 으뜸이었다. 또한 그림 그리고 거문고를 타며 바둑을 두는 재주가 뛰어났고, 옛 것을 좋아하고 아름다운 경치를 찾아다니는 성품을 지니고 있었다. 북쪽 문 밖에는 무이정사를 짓고, 남쪽 호수가 바라보이는 곳에 담담정을 지었다. 그곳에서 만 권의 서적을 갈무리해두고 문사들을 불러 모아 달밤에 배를 띄우기도 하고 등불을 켜놓고 밤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다. 시구를 주고받으며 장기와 바둑을 두기도 하고 관현악을 연주하기도 하며 술 마시고 취하여 농담을 즐기기도 하였다. 당대의 이름난 선비들치고 그와 친교를 맺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무뢰배나 시정의 잡인들도 다수 그를 따라다녔다. 항상 사람들로 하여금 가는 생사로 비단을 짜게 하여 붓을 휘둘러 해서·초서·행서 등을 써놓고, 글씨를 얻으려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집어주었다. 원교 이광사의 <원교서결>에 이르기를 ‘안평대군의 필법은 빼어나게 아름다워 사랑할 만하고, 재주 있는 기질이 빼어났다. 오로지 조맹부의 필법만을 써서 당대에 눈부시게 찬란하였다.’라고 하였다.

(김동욱 역, <안평대군과 최생>, 『국역 청야담수』, 보고사, 2004, 193~194쪽)

『청야담수』 <逢異才弄筆玩技>의 서두부는 역사적 인물 안평대군의 생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역사적 기록과 개인 문집의 기록에 의해 전해지는 안평대군에 대한 사실에 가까운 내용을 기술한 부분이다.

<逢異才弄筆玩技>의 서두부에서도 <운영전>에서처럼 안평대군의 문필가, 지인지감형 예술 후원자로서의 면모가 먼저 설명된다. 그리고 <逢異才弄筆玩技>의 서두부에서는 문필가, 예술 후원자로서의 안평대군의 자질뿐만 아니라 풍류남으로서 안평대군의 모습도 설명된다. 안평대군은 그림과 거문고, 바둑을 잘 두는 재주와 아름다운 경치를 찾아다니는 풍류남아의 모습도 겸비하고 있다. 문사와 서예가와 모여 장기와 바둑을 두고, 관현악을 연주하면서 술 마시며 즐기고 무뢰배나 시정의 잡인들도

안평대군을 따랐다는 것은 안평대군이 한량 같은 자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逢異才弄筆玩技>에 나타나는 안평대군의 모습은 성현의 『용재총화』의 내용과 유사하다.

[6] 비해당(안평대군)은 왕자로서 학문을 좋아하고 시문을 잘했으며, 서법이 기절하여 천하제일이었다. 또 그림 그리기와 거문고 타는 재주도 훌륭했다. 성격이 부탄(浮誕)하여 옛것을 좋아하고 경승을 즐겨 북문 밖에다 무계정사를 지었으며, 또 남호(南湖)가에 담담정을 지어 만 권의 책을 모아 두었다. 문사를 불러 모아 12경시를 짓기도 하고, 또 48영을 짓기도 했으며, 혹은 등불 밑에서 이야기하고 혹은 달밤에 배를 띄웠다. 혹은 연구(聯句)를 짓고 혹은 바둑 장기를 두었으며, 풍류가 끊이지 않았고, 항상 술을 마시며 놀았다. 당시의 이름 있는 선비로서 교분을 맺지 않은 이가 없었고, 무뢰하고 잡업(雜業)을 하는 이들도 많이 모여들었다. 바둑판과 바둑알은 모두 옥으로 만들었고, 또 금니를 글자에 입히고, 사람에게 명주와 생초를 짜게하여, 즉각 붓 가는 대로 글씨를 썼으며, 진초(眞草)와 난행(亂行)을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내주는 일이 많았다.²⁷⁾

성현의 『용재총화』가 1525년에 저작되었으니 『동야회집』의 <逢異才弄筆玩技>를 재수록한 『청야담수』 <逢異才弄筆玩技>는 『용재총화』의 기록을 참고하고 수용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청야담수』 <逢異才弄筆玩技> 서두부의 안평대군에 대한 기록은 성현의 『용재총화』에서 기록하고 있는 안평대군의 행적과 예술 세계와 여러 문집 등에서 회자되는 안평대군의 모습을 토대로 문필가, 예술 후원가, 풍류남아로서 안평대군의 면모를 반복하고 있다. <逢異才弄筆玩技>의 서두부의 문필가, 예술 후원가,

27) 성현, 『용재총화』, 테리도서관 소장 필사본 『안평사적』수록, 심경호(2018), 앞의 책, 496~497쪽 재인용.

풍류남아로서의 안평대군의 모습과 자질은 본 이야기인 행적부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야담의 서두부는 안평대군에 대한 역사적 기록에 의거하여 인물을 소개하는 부분인데 본 이야기인 행적부에서는 서두부의 안평대군의 모습과 자질을 모방하거나 유사하게 하려는 자장 속에서 인물을 형상화한다.

<逢異才弄筆玩技>에서도 명필가로서의 안평대군의 자질은 이미 만 들어져 있고 그 위에다 최생의 뛰어난 재주를 알아보는 안평대군의 지인 지감의 자질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逢異才弄筆玩技>의 행적부는 재야에 있는 가난한 선비 최생이 명필로 유명한 안평대군을 찾아오는 이야기로 시작한다. 최생은 안평대군의 명성을 듣고 안평대군의 글씨를 구경하고는 안평대군을 칭찬한다. 안평대군은 자신의 글씨를 칭찬하는 최생의 안목을 보고 최생에게 붓을 주고 글씨를 쓰라고 한다. 최생이 신이한 솜씨로 글씨를 쓰자 안평대군은 “이게 바로 신필이군! 세상에 이렇듯 남다른 재주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도 이름을 들어볼 수 없었다니, 틀림없이 숨어 지내는 사람일 게야(195쪽)”라고 하며 최생의 명필을 알아보는 감식안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서 안평대군은 최생에게 자기집에 머물면서 글씨 쓰는 비결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나 최생은 자기가 쓴 글씨를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글자를 쓴 종이를 찢어버리고 떠나지만 안평대군은 최생에게 가끔씩 자기를 찾아오라고 당부한다. 이처럼 안평대군은 뛰어난 글솜씨를 지닌 최생을 알아보고 그를 대우하려는 인물로 형상화된다. 콧대 높은 아름다운 평양 기생이 자신보다 재주가 뛰어난 최생에게 반해서 연모의 마음을 전하지만 최생이 거절하고 떠나버린 사실을 알고 안평대군은 최생이 평양 기생에게 박정하게 대한 이유를 묻는다. 최생은 평양 기생의 정체가 미모로 사람을 홀리는 요물이었기 때문에 그녀를 거절했다고 말하자 안평대군은 “그대의 신의 경지에 든 재주와

세상을 구제할 뜻을 이루 감탄을 다할 수가 없네(203쪽)”라고 하면서 군왕을 보좌할 수 있도록 최생을 조정에 천거하려고 한다. 그러나 최생은 안평대군의 말에 발끈하며 다음날 사라져버리지만 안평대군은 최생의 진면목을 알아보는 사람이다. 안평대군은 최생과 세 번을 만나면서 최생의 뛰어난 서법, 예지력과 지혜를 알아보고 재야에서 재주를 숨기고 있는 최생을 세상에 알리려고 하는 지인지감의 능력을 소유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逢異才弄筆玩技>에서 안평대군은 지인지감형 인물이면서도 풍류남으로서의 자질도 함께 지니고 있다. 안평대군은 미모의 평양 기생을 자기 소유로 하고 싶어 “나의 풍채와 재주를 보면 옛날 낙양의 어사를 지냈던 두목보다 그다지 못하진 않을 것이니 어떤 자운이 능히 내 품속에 들어오지 않으랴? 또한 여러 영웅들을 압도하고 이름난 기생을 독점하는 것이 어찌 풍류가 있는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는가?(196~197쪽)”라고 스스로 되뇌며 평양 기생을 자기 소유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위풍당당하게 평양으로 향한다. 권세와 이익을 말하고 화복으로 험박하고 달래도 몸과 마음을 주지 않는 미모의 평양 기생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안평대군의 모습에서 감정이 앞서 충동적으로 여자를 탐하고 행동하는 풍류남의 전형성을 발견할 수 있다.

<逢異才弄筆玩技>의 본 이야기인 행적부는 문필가, 지인지감형 인물, 풍류남으로서 안평대군이 형상화되고 있지만 안평대군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안평대군보다 더 뛰어난 재주를 가진 재야의 선비 최생의 기이한 행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필법과 잡기에 능한 풍류남이인 당대의 유명인사 안평대군보다 뛰어난 최생의 기이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안평대군이 배경화되고 있다고 하겠다. 안평대군은 당대 최고의 문필가, 지인지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풍류남이지만 최생은 권세에서는 안평대

군보다 열등한 인물이다. 그러나 최생은 능력면에서 안평대군을 압도하고 안평대군은 무명의 최생에게 좌절하고 패배당하는 인물이 된다. 최생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재능이 가장 출중하며 안평대군의 재능을 조롱하는 인물이다. <逢異才弄筆玩技>의 안평대군의 패배는 세상에는 안평대군보다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 이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 재주를 세상에 드러낼 때는 신중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2) <逢異才弄筆玩技>의 논평부의 안평대군에 대한 논평

<逢異才弄筆玩技>의 행적부에 이어 논평부에서는 보다 메타적인 시각에서 역사적 인물 안평대군을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보는가를 드러낸다.

[7] 옛날에 기이한 재주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그림자와 자취를 감추고 지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나와 등용이 되면 틀림없이 하늘을 쳐들 만큼 깜짝 놀랄 일을 하게 된다. 강태공이나 제갈무후가 그런 사람들이다. 최생이 한 여자의 일로 인하여 재주를 드러낸 것은 무엇 때문인가? 혹시 안평대군이 재주를 믿고 세상을 깔보므로 그 기세를 꺾으려는 것이었던가. 주자께서 이르시기를 ‘진정으로 위대한 영웅은 도리어 마치 깊은 못에 다다른 듯, 얇은 얼음을 밟는 듯 전전공공하며 거처하고 왕래한다.’고 하셨으니, 아름답도다, 이 말이여! 재주와 기운이 왕성한 사람들에게 정문일침이 될 것이다.

(김동욱 역, <안평대군과 최생>, 『국역 청야담수』, 보고사, 2004, 204~205쪽)

이 논평은 표면적으로는 자신의 재주를 과신하지 말고 항상 자기보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으로 읽을 수 있지만 역사적 인물 안평대군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읽을 수도 있다. 곧 기이한 재주를 가진 최생은 자신이 가진 재주를 드러내지 않는 것과 달리 안평대

군은 자신의 재주를 믿고 세상을 깔보므로써 최생에게 패배했다는 대조적 시각을 드러낸다. 평양 기생을 사이에 두고 안평대군은 평양 기생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이에 비해 평양 기생은 안평대군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권세도 없고 남루한 최생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최생은 평양 기생의 마음을 거절하는 애정의 삼각구도를 통해 안평대군의 명백한 패배를 읽어낸다. 안평대군은 기생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안평대군이 천하제일이라고 내세우는 서법, 거문고 연주 등의 기예에서도 최생에게 뒤지는 것이다. 논평자는 최생이 평양 기생에게 재주를 드러낸 것은 “안평대군이 재주를 믿고 세상을 깔보므로 그 기세를 꺾으려는 것”이라고 논평하면서 안평대군의 우월함과 거만함을 비판하고 있다. 주자의 말을 인용하여 “위대한 영웅은 도리어 마치 깊은 못에 다다른 듯, 얇은 얼음을 밟는 듯 전전공공하여 거처하고 왕래한다”고 하며 자신의 재주와 권세를 뽐냈지만 결국 숨어있는 실력자 최생에게 패배한 안평대군의 가벼운 처신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당대 최고의 권세와 재주, 풍류를 지녔다고 알려진 안평대군이 무명의 선비 최생에게 패배한다는 <逢異才弄筆玩技>의 안평대군과 최생의 이야기를 통해 논평자는 재주와 기운이 왕성한 사람일수록 자중자애하고 겸손하라는 정문일침의 경계와 교훈을 힘주어 말하고 있다. <逢異才弄筆玩技>의 논평부의 이와 같은 메시지는 재능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중자애하고 겸손하라는 계세적 교훈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인물 안평대군의 재능과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보여준다. 야담의 허구적 인물 안평대군의 이야기를 논평하면서 역사적 인물 안평대군에 대한 평가와 해석을 병렬시켜 논평하는 것이다. 곧 계유정난에서 패배한 안평대군의 역사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해석을 보여주고 있다.

당대 서법의 일인자이면서 많은 예술가를 거느리고 문화그룹을 형성하

며 절정기의 삶을 살았던 안평대군과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계유정난을 일으키고 안평대군의 세력을 축출하려는 수양대군과의 대결에서 안평대군이 패배한 것은 안평대군이 재주를 뽐내며 신중하지 못하게 처신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은연중에 드러나는 것이다. 수양대군의 세력에 의해 안평대군과 그와 친분을 지녔던 많은 선비와 문사가 희생당하고 안평대군도 사약을 받는 비극이 발생했지만 <逢異才弄筆玩技>에서는 안평대군을 동정적으로 바라보지만은 않는다. <逢異才弄筆玩技>는 안평대군이 권세와 재주는 뛰어났지만 이것을 신중하게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뛰어난 실력자에게 패배하여 과국을 맞는 인물로 바라보고 안평대군과 관련된 역사를 해석하는 것이다. 안평대군과 최생의 대결은 안평대군과 수양대군의 대결이었던 계유정난의 과정과 결과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가운데 재조직원 서사인 것이다. 안평대군의 우월함과 거만함이 계유정난의 패배를 야기했다는 역사적 인식과 해석이 최생에게 패배하는 안평대군의 야담을 만드는 동인이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3. <운영전>과 <逢異才弄筆玩技>의 안평대군에 대한 상상력과 의미

1) 역사 유사화의 모방적 상상력과 의미

앞장에서 소설 <운영전>과 야담 <逢異才弄筆玩技>의 인물 형상화와 표상, 평가를 통해 역사적 인물 안평대군이 소설과 야담에서 어떻게 형상화되고 표상되며, 평가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역사적 인물 안평대군은 <운영전>과 <逢異才弄筆玩技>에서 비슷한 자질과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운영전>의 내부액자에서 허구적 인물 안평대군은 뛰어난 문필가, 지

인지감의 예술 후원자, 권력을 가진 통제자의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逢異才弄筆玩技>의 행적부에서 허구적 인물 안평대군은 뛰어난 문필가, 지인지감의 예술 후원자, 풍류남으로서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권력을 가진 통제자로서의 모습은 <운영전>에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풍류남의 모습은 <逢異才弄筆玩技>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인물 자질이다. 그런데 문필가, 지인지감의 예술 후원자, 풍류남의 자질과 모습은 역사적 인물 안평대군의 기록과 안평대군과 관련해 유전(遺傳)되어 온 사실에 의거해 이것을 수용하고 유사하게 만든 인물 형상화하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물 형상화는 역사와 사실에 기반을 두고 역사와 사실과 유사하게 소설과 야담의 인물을 구성하려고 하는 문학적 상상력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역사 유사화의 모방적 상상력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 유사화의 모방적 상상력은 소설 <운영전>과 야담 <逢異才弄筆玩技>의 안평대군을 형상화하는 중요한 문학적 상상력이 된다 하겠다.

역사 유사화의 모방적 상상력은 역사적 인물을 문학적으로 재구성할 때 발휘하는 필연적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을 바탕으로 소설과 야담을 창작할 때 인물은 작가의 머릿속에서 완전 새롭게 창조되는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 맥락을 참조하면서 구성된다. 역사적 인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과 자질을 포착하여 똑같이 모방하거나 유사하게 하는 방향으로 문학적 인물의 큰 틀을 디자인하게 되는데 <운영전>과 <逢異才弄筆玩技>는 역사적 인물 안평대군의 문필가, 지인지감의 예술 후원자, 풍류남의 자질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운영전>의 창작 연대는 17세기로 추정되고, <逢異才弄筆玩技>는 『동야휘집』과 『청야담수』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창작 연대는 19세기 초반에서 20세기 초반으로 추정된다. 두 작품은 17세기~20세기 사이에 기록되었던 안평대군

의 기록과 구전되는 선행 텍스트를 참조하고 이 선행 텍스트의 견인 속에서 소설과 야담의 장르에 맞게 인물을 재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운영전>과 <逢異才弄筆玩技>는 왜 역사적 인물 안평대군을 선택하여 소설을 창작하는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운영전>은 궁녀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 이야기이고, <逢異才弄筆玩技>는 기이한 재주를 가진 최생을 부각시키는 이야기인데 말이다. 그런데 소설과 야담에서 역사적 인물 안평대군이 선택되는 이유는 바로 고전소설과 야담의 주인공과 보조 인물의 성격적 전형성과 역사적 인물 안평대군의 자질이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 있다. 고전소설이나 야담에서 남성 주인공이나 선인형 보조 인물은 대부분 문장과 필법에 뛰어난 인물이다. 남성 주인공의 문필 능력은 고전소설이나 야담의 주인공이 가져야 하는 기본 중에 기본적인 자질이다. 덩으로 풍류남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들도 있는데 영웅소설이나 장편가문소설 등의 다수의 주인공이 이런 자질을 가진 것으로 구성된다. 또한 지인지감의 능력도 가지고 있어서 미래를 내다보고 신중하게 행동하기도 한다. 고전소설과 야담의 이와 같은 남성 인물의 자질은 고전 서사문학의 전통적인 인물 구성의 관습으로 고전 서사문학의 남성 인물을 주조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인물 구성의 요소이다. 역사적 인물 안평대군이 지닌 성격적 자질은 고전 서사문학의 남성 주인공이나 보조 인물의 성격 구성에서 고려하는 자질에 부합한다. 역사적 인물 안평대군이 가지고 있는 문필가, 지인지감의 능력, 풍류남의 자질은 고전 서사문학의 남성 주인공과 보조 인물의 전형성에 부합하는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인물 안평대군은 소설이나 야담에서 선택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운영전>과 <逢異才弄筆玩技>는 역사를 모방하거나 유사하게 하는 역사 유사화의 모방적 상상력으로 안평대군을 형상화하지만 한

편으로는 소설과 야담의 장르적 속성에 따라 안평대군 인물 형상화에도 차이점이 나타난다. 이것은 역사적 인물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할 때 나타나는 인물에 대한 문학적 변용이라고 할 수 있다.

<운영전>의 권력을 가진 통제자로서 모습은 역사적 인물 안평대군의 자질과 성격을 곧바로 모방하는 것은 아니다. <운영전>에서 재구성하는 안평대군의 새로운 면모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안평대군의 모습에서 작가가 유추하고 상상한 인물 자질이다. 운영과 김진사, 안평대군의 대립과 갈등을 만들기 위해 소설이 재구성한 인물의 성격화라고 할 수 있다. 소설은 점진적인 갈등을 쌓아올려 해결로 나아가거나 파국으로 나아가는 장르적 특징을 지닌다. 소설의 갈등 유발자의 기능을 안평대군이 맡기 때문에 역사적 인물 안평대군의 이와 같은 캐릭터가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야담과 달리 풍류남으로서의 자질이 <운영전>에서 약화된 것도 안평대군의 진지성을 부각시켜 운영, 김진사와 안평대군의 갈등을 첨예하게 하기 위해서 일 것이다.

반면 야담 <逢異才弄筆玩技>는 문필가, 지인지감의 예술 후원자, 풍류남의 안평대군의 역사적 면모를 그대로 모방하여 안평대군을 형상화한다. <운영전>과 비교해볼 때 <逢異才弄筆玩技>에는 권력을 가진 통제자로서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풍류남의 모습이 더 부각되고 있다. 풍류남의 자질 때문에 평양 기생을 탐내고, 무명의 최생을 만만하게 보고 재주를 드러내다 번번이 패배하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풍류남의 자질은 안평대군의 패배를 만들고 안평대군의 우월감과 가벼움을 드러내는 약점이 되는 것이다. 이 자질로 인해 야담 <逢異才弄筆玩技>는 안평대군의 재능과 권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효과를 드러낸다. 안평대군의 재능과 성격을 그대로 형상화하지만 안평대군과 대조되는 최생이라는 인물을 창조하여 역사적 인물 안평대군의 재능과 성격을 새로운 방향으로 해

석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 인물 안평대군의 처신과 행동을 냉소하고 인간적 결함을 드러내는 인물 형상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

2) 역사 평가화의 해석적 상상력과 의미

소설 <운영전>과 야담 <逢異才弄筆玩技>에서 인물을 구성할 때는 역사를 모방하거나 유사하게 하는 역사 유사화의 모방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안평대군의 자질과 성격을 만들지만 <운영전>의 외부액자와 <逢異才弄筆玩技>의 논평부에서는 안평대군에 대한 평가와 해석을 통해 인물에 대한 표상과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살펴보았다. 안평대군의 생애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소설과 야담 창작자의 평가와 해석이 소설과 야담 속 인물의 표상을 만드는 또 하나의 기제가 되는 것이다.

인물의 구체적 자질과 모습을 만드는 데 관여하는 역사 유사화의 모방적 상상력은 선행 텍스트인 역사를 의식하고 역사를 참조하며 모방하는 상상력이라면 <운영전>의 외부액자와 <逢異才弄筆玩技>의 논평부에서 작동하는 것은 역사를 바라보고 평가하며 해석하는 메타적 시선이다. 이러한 메타적 시선은 같은 사건인 역사를 다르게 해석하고 인식하는 문학 향유자의 시각 차이를 반영한다. 이것을 우리는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문학적으로 허구화할 때 관여하는 역사 평가화의 해석적 상상력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 평가화의 해석적 상상력은 작가나 논평자가 역사적 인물의 삶의 과정과 역사의 결과를 다르게 보고 해석하는 시각의 다양성에서 만들어진다. 동일한 역사적 인물을 허구화한다 해도 역사적 인물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감정, 동정이나 비판의 시각은 역사 평가화의 해석적 상상력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다. 역사 평가화의 해석적 상상력은 역사적 인물 안평대군을 소설과 야담의 허구적 인물 안평대군

으로 전화시킬 때 각기 다른 방향으로 주조하게 하는 작가의 시각이면서 문학 향유층의 인식과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 유사화의 모방적 상상력이 소설과 야담에서 안평대군의 유사한 성격 자질을 만드는 동력이라면 역사 평가화의 해석적 상상력은 소설과 야담의 의미와 메시지를 주조하는 데 관여한다.

<운영전>과 <逢異才弄筆玩技>는 공히 안평대군의 실패와 좌절이라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안평대군의 실패와 패배를 각기 다르게 평가하고 해석하고 있다. <운영전>의 안평대군의 실패와 패배의 구조는 안평대군을 약자, 피해자로 파악하고 동정과 연민의 감정으로 바라보며 인물에 대한 표상과 이미지를 이런 방향으로 만든다. <운영전>의 외부액자 속의 퇴락한 수성궁의 모습, 김진사, 운영, 유영의 비애적 태도는 최고의 재능과 권력을 가진 인간 안평대군의 삶이 추락하여 소멸하는 인생의 흥망성쇠와 인간사의 이면을 읽어내는 역사에 대한 해석적 반응인 것이다.

안평대군은 계유정난이 일어난 1453년에 36세의 나이로 사사되었다. 그리고 1747년(영조 23)에 복관(復官)되었고, 1759년(영조 35)에 장소라는 시호를 받고 제사가 올려졌다.²⁸⁾ 거의 300여년이 지난 후에야 국가적 차원에서 안평대군의 억울함이 밝혀지고 안평대군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문인들 사이에서는 안평대군의 삶과 역사를 동정적으로 바라보고 추모하며 글과 시를 남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선조 때 문인 윤근수(1537~1616)는 안평대군이 쓰던 벼루를 얻고는 감회에 젖어 <안평연기(安平硯記)>를 써서 안평대군을 추모하였으며, 선조 때 이정귀(1564~1635)는 담담정 터에서 안평대군의 옛일을 회상하면서 무상감을 토로하는 7언 절구시를 지었다.²⁹⁾ 숙종 때 소론의 문신이면서 정치가

28) 심경호(2018), 앞의 책, 1108~1109쪽.

였던 최석정(1646~1715)도 안평대군의 유지에서 가까운 도장동에서 노닐면서 7언 배율시를 지어 안평대군을 회상하였고, 숙종 때의 문신이었던 오도일(1645~1703)도 ‘비해당 유희’를 보고 <불암만음>과 <비해당구지>라는 두 편의 시에서 안평대군을 회상하였다.³⁰⁾ 또한 숙종 때 소론계 문신 신성하(1665~1736)는 <누각안>이란 시에서 안평대군을 회상하며 추모하였다. 신성하의 <누각안>이란 시³¹⁾는 <운영전> 서두의 수성공의 퇴락과 결말의 김생과 운영의 시에서 나타나는 비애의 감정과 유사한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문인들은 안평대군의 삶과 역사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비애적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운영전>은 바로 16~18세기 문인들이 가지고 있던 안평대군에 대한 이와 같은 생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에 비해 <逢異才弄筆玩技>의 안평대군의 실패와 패배의 구조는 역사적 인물 안평대군의 우월함과 거만함으로 야기된 것이며 안평대군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인물에 대한 표상과 이미지를 이런 방향을 만들게 된다. 이것 역시 안평대군을 둘러싼 역사를 평가하고 해석하는 야담 향유자의 시각을 투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안평대군의 재능, 풍류, 권세는 더 뛰어난 사람에 의해 패배할 수 있다는 논평은 안평대군의 거만함과 우월함을 경계하고 안평대군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드러낸다. 『청야담수』 <逢異才弄筆玩技>는 18~20세기 초 문헌설화와 야담에서 반복적

29) 심경호(2018), 앞의 책, 1089~1092쪽.

30) 심경호(2018), 앞의 책, 1093~1095쪽.

31) 신성하의 <누각안(樓閣內)>은 다음과 같다. <누각만 남은 처량한 곳(樓閣淒涼址)/ 황량한 터에 저녁 바람 일어난다(荒墟夕起風)/ 구름 속으로 개와 닭은 아득히 떠나고(白雲雞犬杳)/ 붉은 연지분과 비단치마도 사라졌다(紅粉綺羅空)/ 당시 복록이 양화로 너무도 급격히 바뀌어(禍福當時迕)/ 호화스런 삶이 한 조각 꿈이 되었고(豪華片夢同)/ 지난날 행락하던 곳에는(昔年行樂處)/ 나그네와 초동뽕(遊客與樵童)> 심경호(2018), 앞의 책, 1095~1096쪽.

으로 나타나는 안평대군의 이야기를 통해 과잉적 재주를 컨트롤하지 못했던 귀공자 안평대군의 부정적 면모를 계세적인 관점으로 담론화하는 것이다. 안평대군의 우월함과 거만함이 계유정난의 패배를 야기하고 안평대군의 몰락을 초래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은 계유정난에서 패배한 안평대군의 약점, 결함을 더 부각시켜 힘의 대결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합리화하는 강자의 시각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역사 평가화의 해석적 상상력은 역사적 인물 안평대군을 바라보는 후대의 다양한 역사적 인식에서 만들어지는 문학적 상상력이다. 이 상상력은 <운영전>과 <逢異才弄筆玩技>의 허구적 인물 안평대군을 형상화하고 표상하는 두 가지 양상을 만들게 된다. <운영전>은 안평대군을 권력을 가진 통제자이면서도 약자와 패배자라는 이중적 시선으로 안평대군을 바라보고 해석하기 때문에 안평대군에 대한 중층적인 시각을 보여준다. 17세기 <운영전>의 향유층은 안평대군을 권력을 가진 통제자이면서 비운의 인물이라는 시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逢異才弄筆玩技>는 안평대군의 우월함과 거만함이 야기하는 패배를 통해 영웅과 재자일수록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준다. <逢異才弄筆玩技>의 향유층은 안평대군을 함부로 자기 재주를 드러내다 좌절하는 실패자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역사 속 재자, 영웅의 자질을 지닌 안평대군은 역사 평가화의 해석적 상상력에 의해 소설과 야담에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표상된다. 역사 평가화의 해석적 상상력은 후대인들이 안평대군을 어떻게 바라보고 판단하는가 하는 안평대군에 대한 역사적 관점을 문학 속에 새기면서 소설과 야담의 주제와 의미를 만드는 중핵이 되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4. 맺음말

본 연구는 역사적 인물 안평대군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고전소설 <운영전>과 야담 <逢異才弄筆玩技>의 안평대군에 대한 형상화와 표상, 논평을 중심으로 이러한 문학적 형상화를 가능하게 하는 상상력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운영전>의 내부액자에는 안평대군을 문필가, 지인지감의 예술 후원자, 권력을 가진 통제자의 자질과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逢異才弄筆玩技>의 서두부, 행정부에서는 안평대군을 문필가, 지인지감의 예술 후원자, 풍류남의 자질과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한편으로 <운영전>의 외부액자에서는 수성공의 묘사, 인물의 반응을 통해 안평대군에 대한 비애적 감정을 드러내고 계유정난에서 패배하고 죽임을 당한 안평대군에 대한 동정적인 시각을 표현한다. 그러나 <逢異才弄筆玩技>의 논평부에서는 안평대군이 권세와 재주는 뛰어났지만 이것을 신중하게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유정난에서 패배하여 파국을 맞게 되었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표현한다. <운영전>의 내부액자와 <逢異才弄筆玩技>의 서두부와 행정부의 인물의 자질과 모습은 역사를 모방하거나 유사하게 인물을 구성하려고 하는 역사 유사화의 모방적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다. <운영전>의 외부액자와 <逢異才弄筆玩技>의 논평부의 안평대군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과 시각은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다양하게 바라보는 역사 평가화의 해석적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 평가화의 해석적 상상력은 문학 향유층의 인식과 가치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구체적 작용인 것이다.

역사 유사화의 모방적 상상력은 역사적 인물 안평대군을 문학에서 형상화할 때 유사하고 반복적인 인물 자질과 성격을 만드는 기제가 된다. 문학 텍스트에서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을 소재로 재구성할 때는 끊임없

이 선행 텍스트인 역사 텍스트를 참조하고 역사 텍스트에 견인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역사 평가화의 해석적 상상력은 새로운 안평대군의 서사를 만드는 기제로 작용한다. 이것은 당대의 역사적 인물을 문학 텍스트 창작 당시의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평가하게 하는데 창작 당시 문학 향유층의 인식을 투영하기 때문에 인물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시각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역사 유사화의 모방적 상상력과 역사 평가화의 해석적 상상력은 문학이나 영상 등 다른 문화 텍스트에서 안평대군의 다양한 모습을 창조해내는 동력이 된다.

참고문헌

- 김동욱 역, 『국역 동패락송』, 아세아문화사, 1996, 1~518쪽.
- 김동욱 역, 『국역 청야담수』 1, 보고서, 2004, 1~337쪽.
- 김종권 교주, 송정민의 역, 『금계필담: 한국의 미담일사』, 명문당 1985, 1~332쪽.
- 이상구, <운영전>, 『17세기 애정전기소설』, 월인, 1999, 96~159쪽.
- 임형택 역, <최생전>, 『한문서사의 영토』 2, 태학사, 2012, 141~145쪽.
- 정명기 편, 『원본 동아휘집』상, 보고서, 1992, 1~337쪽.
-
- 강상순, 「운영전의 인간학과 그 정신사적 의미」, 『고전문학연구』 39, 한국고전문학회, 2011, 125~157쪽.
- 김동욱, 「<靑野談藪>의 源泉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제기」, 『도남학보』 20, 도남학회, 2004, 163~272쪽.
- 大谷森繁, 『雲英傳 小考』, 『조선후기소설독자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1995, 175~181쪽.
- 박기석, 「운영전」,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7, 716~722쪽.
- 박일용, 「운영전의 비극적 성격과 그 사회적 의미」, 『조선시대의 애정소설』, 집문당, 2000, 166~188쪽.
- 신경숙, 「운영전의 반성적 검토」, 『한성어문학』 9, 한성대 국어국문학과, 1990, 61~65쪽.
- 신재홍, 「운영전의 삼각관계와 숨김의 미학」, 『고전문학과 교육』 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4, 111~137쪽.
- 심경호, 『안평安平-몽유도원도와 영혼의 빛』, 알마출판사, 2018, 7~1155쪽.
- 엄태식, 「운영전의 서술 양상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 28, 한국고소설학회, 2009, 39~69쪽.
- 이상구, 「운영전의 갈등양상과 작가의식」, 『고소설연구』 5, 한국고소설학회, 1998, 133~176쪽.
- 이완우, 『安平大君 李瑢의 文藝活動과 書藝』, 『미술사학연구』, 한국미술사학회, 2005, 73~115쪽.
- 이종묵, 「安平大君의 문학 활동 연구」, 『진단학보』 93, 진단학회, 2002, 257~275쪽.
- 이지영, 「<운영전> 창작의 문학적 배경과 연원」, 『국문학연구』 26, 국문학회, 2012,

133~162쪽.

- 장효현, 『서유영 문학의 연구』, 아세아문화사, 1988, 195~196쪽.
- 전성운, 「운영전의 인물 성향과 비회의 정조」, 『어문논집』 56, 민족어문학회, 2007, 115~143쪽.
- 정길수, 「운영전의 메시지-캐릭터 설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 『고소설연구』 28, 한국고소설학회, 2009, 71~101쪽.
- 정출현, 「운영전의 애정갈등과 그 비극적 성격」, 『고전소설사의 구도와 시각』, 소명출판사, 1999, 81~121쪽.
- 조용호, 「운영전 서사론」, 『한국고전연구』 3, 한국고전연구학회, 1997, 134~158쪽.
- 황혜진, 「고전소설 소재 인물의 역사적 삶에 대한 연구-<운영전>의 안평대군에 대한 실록의 기록을 대상으로-」, 『고소설연구』 29, 한국고소설학회, 2010, 117~147쪽.

ABSTRACT

Literary imagination about Anpyeong prince and its meaning in
Unyeongjeon and Bongijaerongphilwangi

Kim, Mun-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literary imagination of reconstructing historical character and its meaning through imagery, representation and comments on historical character, Anpyeong prince who appears in Unyeongjeon and Bongijaerongphilwangi. In the interior frame of Unyeongjeon, Anpyeong prince is shaped as a writer and calligrapher, a patron of the arts and a commander with power. Emotion of grief and sympathetic view about Anpyeong is expressed through description of Suseong palace and reaction of figures in the interior frame of Unyeongjeon. The beginning and body part of Bongijaerongphilwangi is shaping a writer and calligrapher, a patron of the arts, a man of refined taste. In the comment part of Bongijaerongphilwangi, Anpyeong is viewed negatively that he is defeated in the Gyeyujeongnan because he used his talents uncarefully. The shape of figures in the interior frame of Unyeongjeon and the beginning and body part of Bongijaerongphilwangi, is imitating imagination of history simulation which constitutes figures imitating history. The meta-view about Anpyeong prince in the exterior frame of Unyeongjeon and comment part of Bongijaerongphilwangi, is the interpretive imagination of history assessment which views historical events and characters variously. The imitating imagination of history simulation gives material that make repetitive talent and personality of character when shaping a historical character, Anpyeong prince in literature. The interpretive imagination of history assessment gives material that make the narration of Anpyeong prince fresh.

Key Words Unyeongjoen(雲英傳), Bongjaerongphilwangi(逢異才弄筆玩技),
Anpyeong prince, historical character, literary imagination

논문투고일 : 2018.07.14
심사완료일 : 2018.08.14
게재확정일 : 2018.08.24